

■ 이명박 대통령 당선

주식시장 효과 얼마나일까

국제선 항공료 年初 크게 오른다

美·유럽 등 장거리 노선 4만 8,000원 더 부담

새 유류할증제 1월부터 시행

■국제선 유류 할증료 인상

구분	노선	현행	조정
여객	장거리 (미주·유럽 등)	4~52달러	5~140달러
	단거리 (동남아시아·카자흐스탄 등)	2~25달러	2~62달러
	일본 노선	1~11달러	1~32달러
화물	장거리	30~600원	30~1110원
	단거리	30~600원	30~1040원

\*자료:건설교통부, 여객은 1인, 화물은 1kg 편도 기준

정부가 국제선 유류할증료 제도를 개편함에 따라 내년 초 국제선 항공요금 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항공요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운 국제선 유류할증료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기 운항 비용 증가분을 요금 인상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그동안 여객의 경우 7단계까지 운영해왔는데 이번에 16단계까지 늘리고 장거리, 단거리, 일본 노선으로 세분화해 현실성을 높였다.

여객 유류할증료의 경우 기존 7단계 제도에서는 유가상승에 따라 장거리 노선에서 최대 52달러까지 항공요금을 추가로 내야했지만 앞으로 16단계까지 올라가면 140달러를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건교부는 여객 유류할증료를 내년 1월부터 월간당 2.60~2.69달러 수준인 12단계 적용할 방침이다.

만8천500원, 싱가포르·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은 1만9천500원 정도의 항공료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내년 유가가 월간당 2.00~2.09달러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장거리 노선에서 현재 최대 52달러를 내야했던 것보다 적게 낼 수 있어, 내년에 유가만 안정세를 보인다면 항공요금도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다.

또 건교부는 항공화물 유류할증료를 기존 8단계에서 17단계로 고쳤으며 이에 따라 내년 1월에 월간당 2.60~2.69달러인 13단계가 적용된다면 단거리 790원, 장거리는 840원으로 기존 최고 8단계에서 부과하던 600원보다 다소 높아지게 된다.

“불확실성 견뎠다”… 단기 반등은 확실

1997·2002년 대선보다 상승 동력 양호  
글로벌 악재 맞물려 상승세 주저 않을수도

한 전문가는 “2012년 30%대까지 주식투자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연금이 지난 12일 트리플위칭데이에 대규모로 쏟아진 프로그램 매물을 소화하는 등 대선을 앞둔 연금의 행보가 의미심장하다”며 “대선을 기점으로 차기정부 기대가 상승동력을 제공, 상승 장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한증권 김중현 애널리스트도 “현재 증시가 안팎으로 곤란을 겪고 있어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불확실성 해소,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상승 장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신용경색 위기, 중국 금리 조정 등 글로벌 악재가 항상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혔다.

정필수기자 bungju@kwangju.co.kr

19일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됨에 따라 이 제 증시는 ‘새 대통령 효과 얼마나일까’에 관심이 쏠려 있다.

선기로 정국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차기 정부의 정책조기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지지부진한 시장에 상승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특히 지난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결정,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트리플위칭데이) 등 급격한 변수를 무사히 넘기는 등 과거 대선이 있었던 1997년이나 2002년보다 현 증시 상황이 더 양호해 연 말효과와 함께 ‘새 대통령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반등은 단기에 그칠 것이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글로벌 악재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 많아 큰 폭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증권 전문가들은 “12월의 대선효과와 1997년, 2002년 대선보다 증시가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과거 대선당시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각종 집단 증권주 등 금융주가 고개를 들고 있으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전기전자기 바닥권을 탈피해 1997년, 2002년 12월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실제 코스피지수는 2007년 12월 들어 18일까지 2.3% 하락하는데 그치고 있다. 2002년과 1997년에는 12월 한 달 동안 각각 4.3%, 14.1% 떨어졌다.

또 수급 상황도 안정적이다. 1997년 대선

당시에는 수급 주체가 외국인으로, 이들이 선호하는 은행주만 상승했다. 당시에는 외환위기가 발생해 수급상황이 절대적으로 취약해져 외국인의 매수세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2002년에는 외환위기를 벗어나는 시기였지만 기관자금에 증시를 받쳐주기에 부족했고 개인들이 매매 중심이 되며 지수의 변동성을 확대시켰다.

이에 반해 2007년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화되고 있지만 개인과 투신, 연금이 중심이 돼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해외 부동산 취득 8월이후 급감

11월 한달 151건에 5,900만달러 규모



완도산 봉장어 말리기

19일 완도군 완도를 부둣가에서 한 아낙네가 봉장어(아나고)를 말리고 있다. 최근 완도에는 제철을 맞은 봉장어를 맛보려는 외지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마른 봉장어 10마리에 1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취득한 부동산 규모가 급감했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국인이 11월 한 달간 사들인 해외 부동산은 총 151건에 5천9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 들어 11월까지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2천465건, 10억2천700만달러로 10억달러를 넘어서었다.

내국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늘면서 취득실적은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1억달러를 넘었으나 8월부터는 월간 취득규모가 1억달러에 못 미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올해의 실적은 작년 1천317건, 7억4천400만달러보다는 크게 늘어난 것이다.

11월 취득실적 중 주거목적용은 35건, 1천700만달러였고 투자목적용은 116건, 4천200만달러로 각각 집계돼 투자목적용이 크게 감소했다. 평균취득금액도 39만달러로 전년(48만달러)보다 낮아졌다.

연합뉴스

태국, 韓-아세안 FTA 상품협정 가입

한국과 태국이 19일 태국의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 상품협정 가입을 위한 협상의 실무를 타결했다고 외교교통부가 밝혔다.

이로써 모든 아세안 10개 회원국들이 한·아세안 상품협정에 참여하게 됐고 2005년 2월 상품협정 협상이 시작된 이후 2년10개월만에 상품 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골격을 완성하게 됐다.

태국은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서명에 불참했고 한·아세안 FTA 협상은 상품과 서비스에서는 타결을 이뤘지만 투자 분야는 아직 타결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태국은 2010년까지 품목 수 기준으로 89.3%, 대(對) 한국 수입액 기준으로 81.5%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없애고 2017년까지 품목 수 기준으로 94.6%, 대 한국 수입액 기준으로 91.1%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화학, 기계, 철강, 중대형 승용차, 화장품 등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 품목 상당수에 대해 일본-태국 경제연대협정(EPA)과 동등하거나 필적하는 수준의 개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석유제품 관세율 대폭 낮춘다

원유 3% → 1%, 휘발유·경유는 5% → 3%로  
순금 무관세... 내년 46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관세율이 대폭 낮아진다.

가격이 급등한 순금과 사료용 옥수수, 대두 등에는 일시적으로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 상반기 할당관세 및 2008년 조정관세 운용계획'을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동안 기본 관세보다 낮은 과세율이 적용되는 할당

관세 품목은 46개다. 특히 전년대비 30%이상 수입가격이 상승했거나 축산농가가 사용하는 원료 등 7개가 새로 포함됐다.

원유와 LNG의 관세율은 3%에서 1%로, LPG는 3%에서 1.5%로 절반 이상 낮아지고 휘발유와 등유, 경유, 중유는 5%에서 3%로 인하된다. 납사용원유는 현행 3%에서 무관세로 변경된다.

기초원자재 중에서는 산화코발트, 페로실리코망간이 할당관세 품목으로 새로 적용돼 각각 3% 관세가 적용되고 페

로니켈과 니켈은 3%에서 1%로 낮아진다. 코발트분과 동박은 각각 3%에서 1%, 8%에서 4%로 인한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현행 3%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은 무관세가 적용되고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도 각각 현행보다 1.5~2.5% 낮아진다.

갈보리의 관세는 20%에서 2%로 대폭 인하되고 동식물성 유지와 면실박도 각각 8%에서 6%, 2%에서 1%로 인한다.

현행 3%인 대두와 1.8%인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관세가 붙지 않게 된다. 제분용 밀과 맥주맥, 가공용 옥수수, 유당의 경우도 관세율이 크게 낮아진다.

재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운용안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며 약 6450억원의 세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높게 운용하는 조정관세 품목은 올해와 같은 16개로 설정됐다. 조정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신규로 추가된 품목은 없다.

연합뉴스

직장인 회사 옮길때마다  
몸값 281만원씩 올랐다

이직경험이 있는 직장인들 중 절반가량은 회사를  
한번 옮길 때마다 연봉이 평균 281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이직(移職)경험이 있는 1년차 이상 직장인 812명을 대상으로 이직희수율 설문한 결과 평균 3.2회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3회(24.9%), 1회(22.7%), 2회(21.6%) 등의 순이었다.

회사를 옮기는 이유에 대해(복수응답) 직장인들은 ‘현 직장이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서’(50.1%)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서’(29.2%), ‘회사의 경영난이 악화돼서’(28.6%), ‘말은 업무가 생각과 달라서’(18.2%), ‘상사·동료와 마찰 때문에’(18.1%) 옮겼다는 이도 있었다.

이들 중 50.0%는 ‘이직으로 연봉이 높아졌다’고 답한 가운데 한번 이직할 때마다 연봉이 평균 281만원 올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내 브라운관 TV 역사속으로

PDP등 초박형 평판TV에 밀려  
LG필립스·삼성SDI 생산 중단

한국을 세계 1위 전자산업 대국으로 이끈 브라운관TV가 18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중국산 저가 제품에 밀린 데다 LCD와 PDP 등 초박형 평판TV의 등장 때문이다. 삼성SDI는 시장성이 한계에 이르러 누적 적자가 증폭되고 있는 TV브라운관 생산을 18일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삼성SDI 부산사업장에서 마지막 작업을 끝으로 19일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TV브라운관을 생산하던 삼성SDI 부산사업장 3공장 2개 라인도 이날 가동을 완전 멈췄다. 또 브라운관TV 생산라인에서 일했던 근로자

1000여 명이 앞서 회사 측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다른 부서로 배치되거나 계약사 및 협력업체로 옮겼다.

지난 2006년 LG필립스에 이어 이날 삼성SDI마저 브라운관 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브라운관TV 생산시대가 막을 내렸다.

LG전자의 전신인 삼성사가 1966년 국내 최초로 TV브라운관을 생산한 지 42년, 삼성SDI가 ‘삼성전관’이란 이름으로 생산한 지 37년 만이다. 1960~1970년대 브라운관TV는 가정에서는 부의 상징이었고 국가적으로는 가전산업의 효시였다. 아울러 TV의 핵심 부품인 브라운관은 당시 한국 가전제품 가운데 최첨단 수출품으로 1980년대 컬러 브라운관 시대를 열면서 오늘날 한국을 세계 영상가전시장의 최강국으로 자리잡게 한 원동력이 됐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중소 월급봉투 두툼해진다

내년 10개 기업 중 7곳  
평균 8.2% 인상 계획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엔 연봉을 인상할 예정이며 이들 기업의 평균 인상률은 8.2%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직원수가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 332개사를 대상으로 내년 연봉인상 현황을 설문한 결과 응답기업의 69.6%가 ‘올해에 비해 연봉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올해 연봉 대비해 평균 8.2%를 인상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연봉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

할 계획’이라고 답한 기업은 30.1%였고, ‘삭감한다’는 0.3%에 불과했다.

연봉 인상을 결정할 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 기업들은 ‘회사의 생산성이나 매출액 등 기업의 지급능력’(69.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연봉 인상 및 조정 방법으로는 ‘인사고과 및 직무평가에 따라 개인별 차등인상’을 두는 평가인상(56.9%)을 주로 도입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이 연봉협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점으로는 ‘적정한 급여수준 및 연봉인상을 책정하는 어려움’(53.0%)과 ‘직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자료 부족’(26.2%) 등을 지적했다.

연합뉴스

■2008 할당관세 품목

검토기준	구분	적용품목 및 세율(%)	
		검토기준	구분
산업 경쟁력 강화 (18)	중소기업 지원 (6)	폴리에틸렌(LDPE)(6.5~4) / 이크릴로니트릴(6.5~3) / 동전해전류물(2~1)	폴리에틸렌(HDPE)(6.5~3) / 폴리프로필렌(6.5~5) / *금지금(3~0)
	농·축·수산업지원 (12)	갈보리(2~2) / 대두(1.8~1) / 근채류(5~2) / (사료용)옥수수(1.8~0) / 이자복(2~1) / 브리안슈림프(8~4)	메나옥펠리트(3~0) / 유장과변성유장(20~2) / 대두(3~0) / * 동·식물성유지(8~6) / * 면실박(2~1) / * 사료용 메나옥셀(20~10)
고유가 대책 (8)	기초 원자재 (11)	원유(3~1) / 납사용원유(3~0) / LNG(3~1) / LPG(3~1.5) / 휘발·등·경·중유(5~3)	우연처리원피(5~2.5) / * 페로실리코망간(5~3) / 코발트(3~1) / 산화코발트(4~3)
		연유(3~1) / 니켈(3~1) / 니켈(5~3) / 동박(8~4) / 폴리락트산(6.5~4) / 향료(8~5) / 생사(8~1)	제분용 밀(1.8~0.5) / 가공용 옥수수(3~0.5) / 유당(20~5)
물고기양성 (25)	농수산물 (6)	페로니켈(3~1) / 니켈(3~1) / 니켈(5~3) / 동박(8~4) / 폴리락트산(6.5~4) / 향료(8~5) / 생사(8~1)	제분용 밀(1.8~0.5) / 가공용 옥수수(3~0.5) / 유당(20~5)
		맥주맥(30~20) / 맥아(30/27~10) / (주정용)메나옥셀(20~10)	제분용 밀(1.8~0.5) / 가공용 옥수수(3~0.5) / 유당(20~5)
세울불균형 시정 (3)		셀링(40~35) / 건식사카기(8~2.5) / 중황기(8~2.5)	합판(8~11) / 전자부품장착기(8~14)